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2월 산업생산지수는 100.2(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
- 부문별로는 중공업 부문 0.4% 증가, 경공업 부문 23.9% 감소
- 서울의 12월 제조업부문 출하, 재고 각각 감소로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부문별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9,035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증가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12월은 연말·성탄절 등으로 인해 생활용품(12.3%), 스포츠문화(9.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로 전월대비 0.4%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1.1%, 서비스는 0.1%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3% 각각 상승

고용

○ **서울의 1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2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한 5,221명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 **서울의 12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2월 취업자는 4,99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1천명(2.5%)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8천명(1.0%), 여자는 93천명(4.5%)이 각각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전국대비(-1.9%) 2.4%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

○ **서울의 12월 실업률 및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서울의 12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남자는 0.4%p 상승한 4.8%, 여자는 보합으로 3.6%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4.3% 상승
- 서울의 12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3%p 하락, 여자는 1.8%p 상승
- 서울의 실업률(4.3%)은 전국 실업률(3.5%)과 0.8%p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용률의 경우 서울(59.5%)과 전국(58.0%)이 1.5%p 차이를 나타냄

부동산

○ **서울의 12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1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2조 20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2.4%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재개발, 신규, 재건축주택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4.3%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철도 및 관공서, 상하수도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70.3% 감소

○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접고 9개월 만에 상승전환**

- 서울(0.04%)의 주택매매가격은 지속되는 광역시와 기타 지방의 상대적인 강세 속에 하락세를 접고 9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

○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다소 둔화**

- 서울(0.6%)의 주택전세가격은 주택전세가격 우수학군 수요 증가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상승률은 다소 감소

금융

○ **서울지역 11월의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11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28조 9,94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3조 3,382억원(0.68%) 증가

○ **서울의 12월 신설법인 수 3개월 연속 증가**

- 서울의 12월 신설법인수는 1,938개로 전월대비로는 4.9%(91개) 증가

○ **서울의 12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12월 부도업체 수는 전월대비 25.4%(13개) 증가

○ **서울의 12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서울의 수출은 42.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등의 순
- 서울의 12월 수입은 96.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3.0% 증가.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순

| 생·산 |

서울의 12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2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2월 산업생산지수는 100.2(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
-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은 증가하였으나, 기타제품,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증가, 경공업 감소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며 3개월째 플러스 성장세 유지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세로 반등

■ 전국의 12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8%, 전월대비로는 2.8% 각각 증가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비금속광물(-3.8%), 기타운송장비(-2.9%)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9.6%), 기계장비(20.3%) 등의 호조로 9.8%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25.5%), 전문·과학, 기술(-9.5%)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운수(12.3%), 금융·보험(8.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7.9%) 등이 증가하여 2.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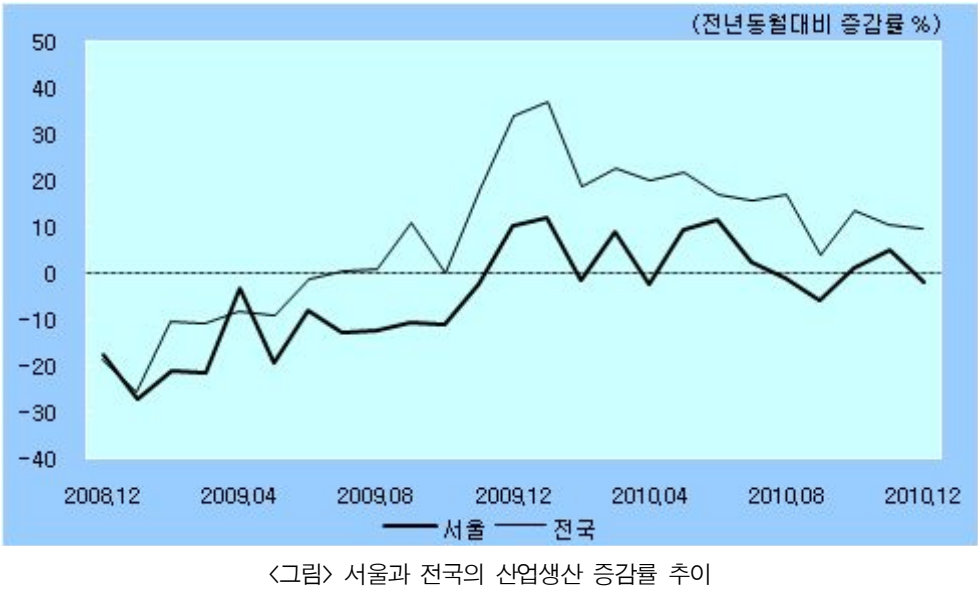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09년	2010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전년동월비	서울 (제조업)		10.2	-1.2	-5.7	1.2	4.9	-1.7
		중공업	3.5	-11.6	-3.3	-0.5	1.8	0.4
		경공업	14.4	5.1	-7.1	2.2	6.9	-2.9
	전국		34.2	17.0	4.0	13.5	10.7	9.8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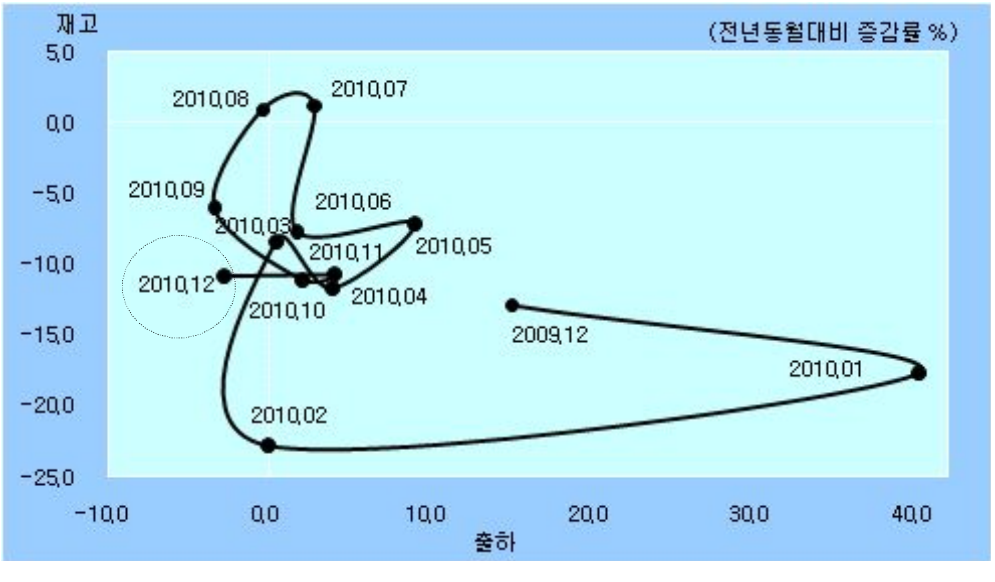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12월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의 12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재고, 출하 각각 증가

- 서울의 12월 재고지수는 129.0(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향음향통신, 식료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섬유제품 등에서 감소
- 출하, 재고 각각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감소, 부문별로는 중공업, 경공업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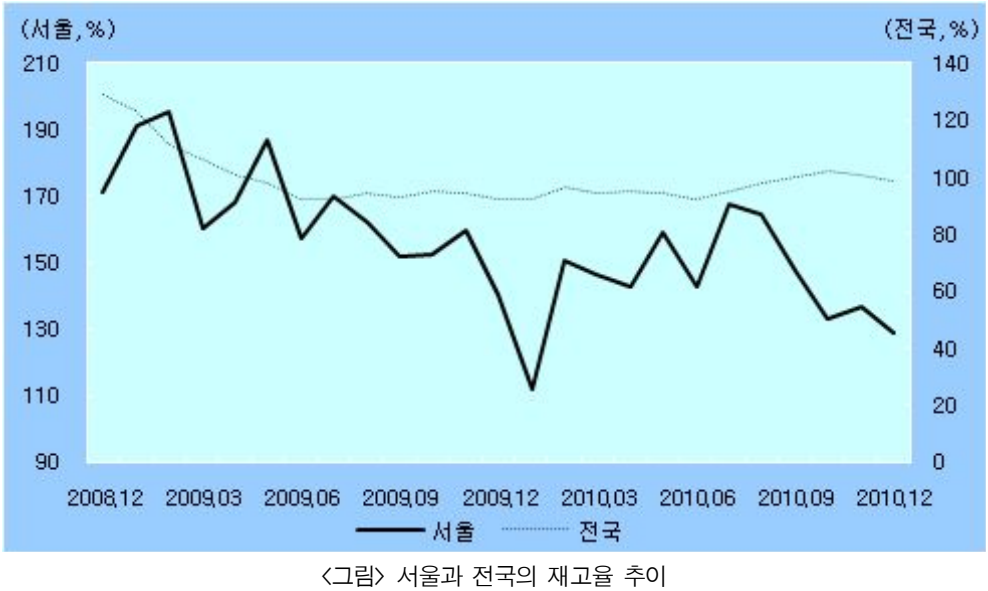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29.0%로 전월대비 7.9%p 감소하였고, 전국 제조업 부문의 재고율은 98.6%로 전월대비 2.0%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5.7%p 감소한 117.7%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3%p 감소한 133.6%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증감
재고율	서울	140.5	164.4	147.8	132.9	136.8	129.0	−7.9
	중공업	110.9	147.2	161.4	146.2	133.4	117.7	−15.7
	경공업	149.5	165.4	137.8	123.6	134.9	133.6	−1.3
	전국	92.6	97.6	100.2	102.1	100.6	98.6	−2.0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출하 원지수)×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9,035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4.1% 증가, 대형마트 7.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12월 판매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연말·성탄절 등으로 인해 생활용품(12.3%), 스포츠문화(9.8%) 각각 증가

■ 전국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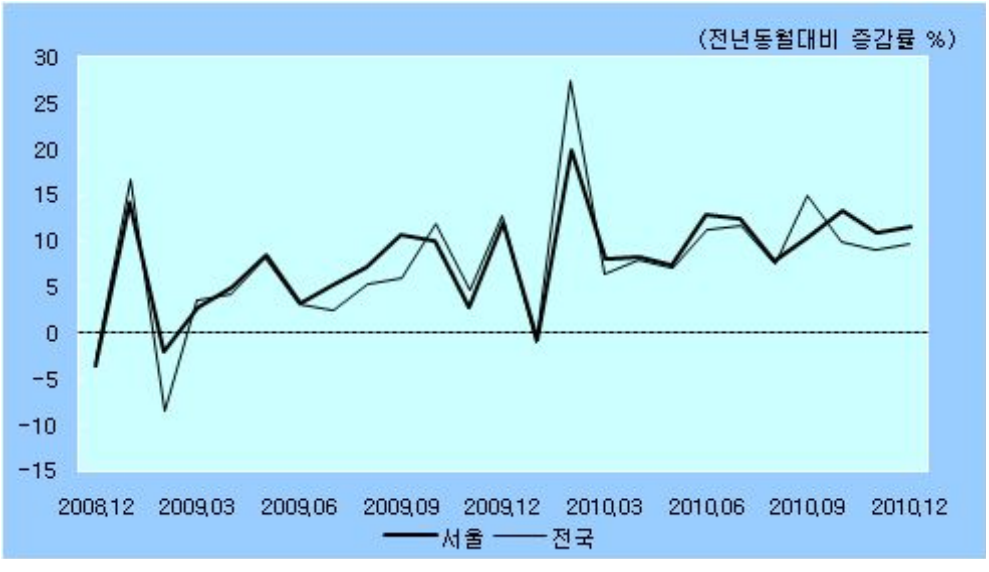
- 전국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조 5,093억으로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2%, 대형마트는 1.6% 각각 증가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6.1%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13.0%,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2% 각각 증가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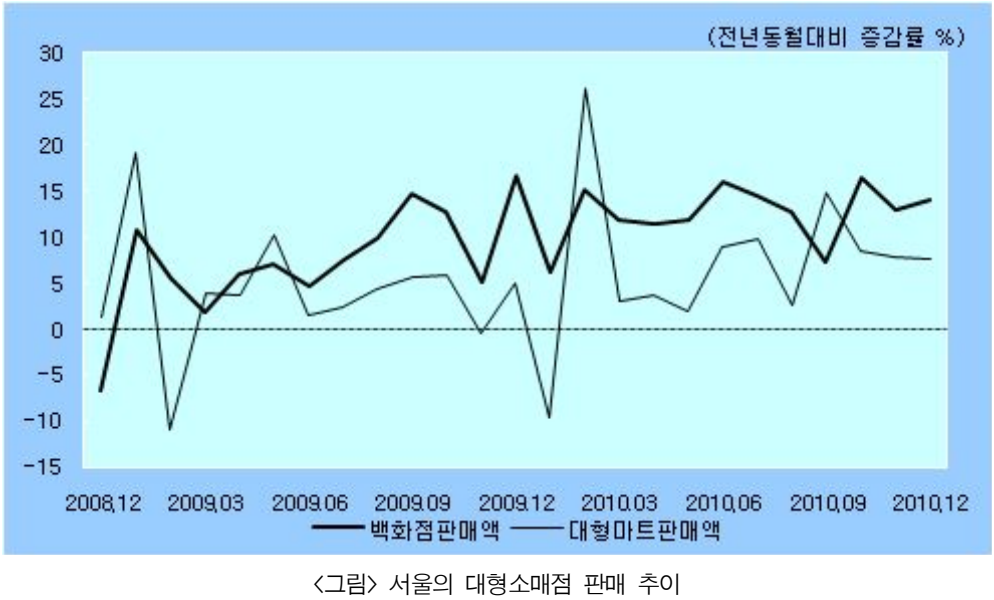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판매액	서울		1705.0	1426.0	1739.8	1786.2	1759.9	1903.5
			(11.9)	(7.9)	(10.5)	(13.4)	(11.0)	(11.6)
		백화점	1048.3	792.0	964.2	1130.6	1104.6	1196.6
			(16.7)	(12.7)	(7.2)	(16.4)	(12.9)	(14.1)
		대형마트 (할인점)	656.6	634.0	775.6	655.5	655.2	706.8
			(4.9)	(2.5)	(14.9)	(8.5)	(7.9)	(7.6)
	전국		5019.9	4385.2	5306.3	5124.5	5072.2	5509.3
			(12.8)	(7.6)	(14.9)	(9.9)	(9.0)	(9.7)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2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서울의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전도시:117.8, 2005년=100)로 전월대비 0.4%(전도시:0.6%), 전년동월대비 3.3%(전도시:3.5%) 각각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은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5.3% 각각 상승, 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

■ 서울의 12월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전도시:0.8%), 전년동월대비 3.2%(전도시:3.9%)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3%(전도시:2.8%), 전년동월대비 29.9%(전도시:33.8%) 각각 상승

■ 전국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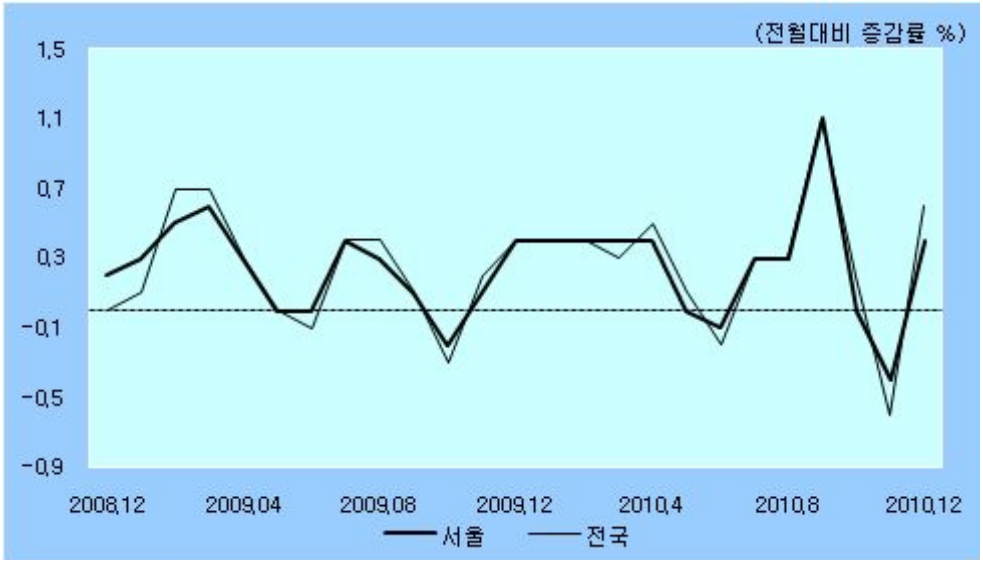
- 전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8(2005년=100)로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전월의 0.6% 하락 이후 1개월 만에 다시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상승,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8% 상승, 전년동월대비 33.8%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6개 시도 모두 0.4~0.9%씩 상승, 특광역시를 제외한 30개 도시별로 전월과 비교하면, 30개 도시 모두 0.4 ~0.9%씩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비	서울		0.4 (2.6)	0.3 (2.4)	0.3 (2.5)	1.1 (3.5)	0.0 (3.7)	−0.4 (3.2)	0.4 (3.3)
	상품 성질별	상품	0.6 (4.2)	0.6 (3.2)	0.7 (3.5)	2.6 (6.0)	−0.3 (6.2)	−1.2 (4.8)	1.1 (5.3)
		서비스	0.2 (1.8)	0.3 (2.0)	0.1 (1.9)	0.4 (2.2)	0.2 (2.4)	−0.1 (2.2)	0.1 (2.1)
	생활물가		0.4 (3.2)	0.3 (2.4)	0.3 (2.4)	1.7 (3.9)	−0.2 (4.1)	−0.8 (3.2)	0.4 (3.2)
	신선식품		5.0 (5.2)	4.7 (12.5)	5.5 (16.6)	22.1 (44.8)	−2.7 (44.9)	−10.1 (34.6)	1.3 (29.9)
	전국		0.4 (2.8)	0.3 (2.6)	0.3 (2.6)	1.1 (3.6)	0.2 (4.1)	−0.6 (3.3)	0.6 (3.5)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서울의 12월 신선식품 고등어를 제외한 모든 품목 가격하락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14.5%,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2.3% 각각 하락 함
- 청과류 중 마늘 25.4%%, 파 19%, 배추 14.8%, 무 7.3%, 양파 6.0% 순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산물의 경우 멸치 10.3% 하락하였고 고등어는 3.5% 상승함, 양곡류인 쌀은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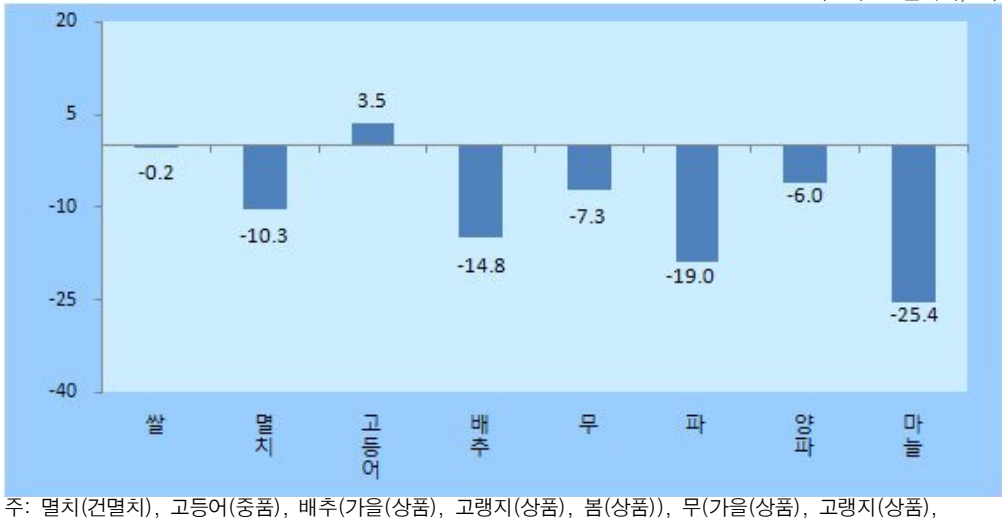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률
양곡	쌀	41,901	42,143	41,968	42,435	39,109	39,046	−0.2
수산	멸치	2,574	2,463	2,582	2,543	2,677	2,428	−10.3
	고등어	2,568	2,500	2,500	2,714	3,545	3,674	3.5
채소	배추	4,560	4,903	7,816	7,679	3,908	3,404	−14.8
	무	2,231	2,646	2,983	4,069	2,849	2,655	−7.3
	파	2,820	2,315	4,766	5,927	4,974	4,181	−19.0
	양파	1,620	1,592	1,717	1,726	1,910	1,802	−6.0
	마늘	9,787	10,713	11,383	12,329	11,121	8,866	−25.4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무(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파(대파(상품)), 양파(상품), 마늘(깐마늘(상품)) 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서울의 1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2월 15세이상 인구는 8,4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천명(0.7%)이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5,2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6천명(2.7%)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1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7천명(-2.4%)이 감소

■ 전국의 1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12월 15세이상인구는 40,80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6천명(1.2%)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4,5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4천명(2.0%)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460명으로 235천명(1.7%)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077천명으로 239천명(2.4%)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제활동인구	서울	0.7 (-0.2)	2.7 (0.7)	3.5 (-1.2)	3.4 (0.0)	3.6 (0.5)	1.9 (-0.3)	2.7 (0.5)
	남자	1.0 (-0.2)	1.3 (0.8)	2.6 (-0.5)	2.4 (-0.4)	2.9 (0.6)	0.9 (-0.4)	1.4 (0.2)
	여자	0.4 (-0.1)	4.6 (0.6)	4.6 (-2.0)	4.6 (0.6)	4.4 (0.3)	3.3 (-0.3)	4.5 (1.0)
	전국	0.1 (-2.3)	1.9 (0.3)	1.3 (-1.6)	1.1 (0.3)	1.4 (0.4)	0.9 (-0.6)	2.0 (-1.2)
경제활동참가율	서울	60.9	62.5	61.8	61.8	62.1	61.8	62.1
	남자	72.6	73.6	73.2	73.0	73.4	73.1	73.2
	여자	49.9	52.0	51.0	51.2	51.4	51.2	51.7
	전국	59.7	62.1	61.1	61.2	61.4	61.0	60.1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서울의 1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2월 취업자는 4,99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1천명(2.5%)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41천명, 여자는 2,15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8천명(1.0%), 여자는 93천명(4.5%)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51.4%), 건설업 33천명(9.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97천명(5.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7천명(4.8%), 제조업 15천명(3.1%)이 각각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64천명(-4.6%)이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전국대비(-1.9%) 2.4%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전국의 1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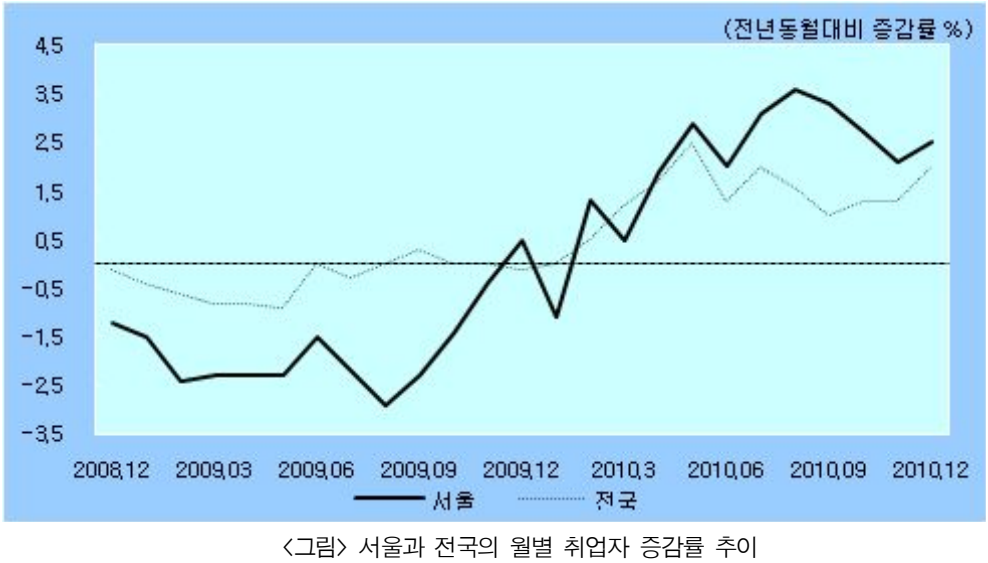
- 전국의 12월 취업자는 23,68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5천명(2.0%)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9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7천명(1.7%) 증가하였고, 여자는 9,755천명으로 228천명(2.4%)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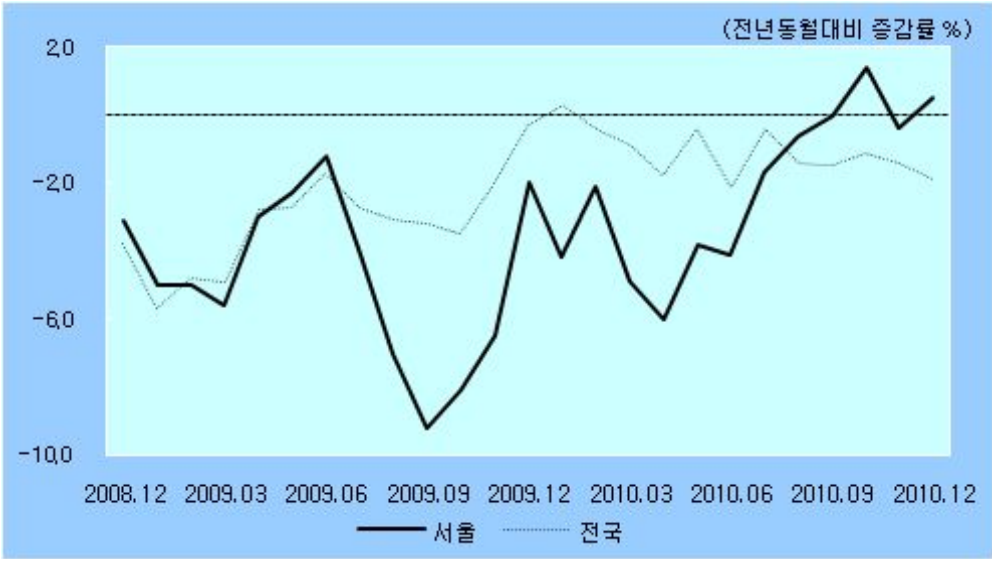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업자	서울	0.5 (0.0)	3.1 (0.5)	3.6 (−1.0)	3.3 (0.0)	2.7 (0.3)	2.1 (0.2)	2.5 (0.3)
	남자	1.4 (0.1)	2.0 (0.7)	3.0 (−0.4)	2.6 (−0.4)	1.8 (0.2)	0.4 (−0.2)	1.0 (0.6)
	여자	−0.7 (−0.2)	4.6 (0.2)	4.5 (−1.8)	4.1 (0.4)	4.0 (0.4)	4.3 (0.7)	4.5 (0.0)
	전국	−0.1 (−2.4)	2.0 (0.1)	1.6 (−1.2)	1.0 (0.2)	1.3 (0.5)	1.3 (−0.3)	2.0 (−1.8)
청년층 취업자	서울	−2.0 (2.5)	−1.7 (1.8)	−0.6 (−2.9)	0.0 (−2.8)	1.4 (0.6)	−0.4 (−0.2)	0.5 (3.4)
	전국	−0.3 (0.6)	−0.4 (3.1)	−1.4 (−4.0)	−1.5 (−2.0)	−1.1 (−0.5)	−1.4 (1.4)	−1.9 (0.1)
고령층 취업자	서울	13.5 (−2.2)	10.6 (0.8)	8.9 (−2.3)	7.8 (2.7)	3.5 (−0.9)	1.3 (−1.3)	2.5 (−1.0)
	전국	−1.9 (−14.0)	3.4 (−1.1)	1.7 (−1.5)	0.9 (1.1)	0.8 (0.4)	0.6 (−4.4)	5.8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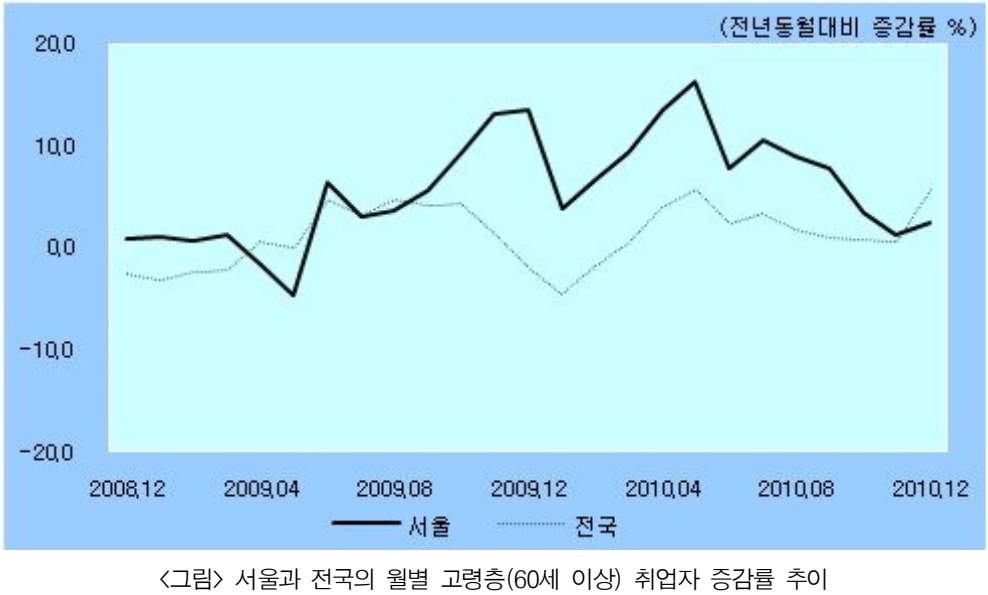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천명(89.4%),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03천명(8.0%), 사무종사자 55천명(6.4%)이 각각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 40천명(-3.1%),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천명(-0.1%)이 각각 감소하였음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 비임금근로자는 1,173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8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36천명(-3.0%)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7천명(4.3%)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천명(-3.7%)이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2천명(1.2%)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46천명(7.2%), 일용근로자는 21천명(4.8%)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0천명(-0.9%)이 감소

■ 서울의 36시간 미만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일시휴직자 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8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명(5.2%)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5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천명(2.2%)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천명(1.6%)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는 26천명(7.2%)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5천명(3.0%)이 증가하였고,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10천명(0.7%)이 증가
- 일시휴직자는 6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5.7%)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별	제조업	−4.9	5.6	9.0	9.2	11.6	6.4	3.1
		(1.1)	(−0.8)	(−0.6)	(−0.8)	(3.2)	(−3.6)	(−2.1)
	SOC 및 기타서비스업	1.2	2.8	3.0	2.6	1.7	1.5	2.4
		(−0.2)	(0.6)	(−1.1)	(0.0)	(−0.1)	(0.7)	(0.7)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10.6	3.3	2.2	3.5	2.1	3.0	9.3
		(−2.0)	(0.9)	(−2.8)	(0.7)	(−0.3)	(1.0)	(−1.5)
	도소매 · 음식숙박	2.4	−0.7	−0.8	−2.8	−3.9	−4.8	−4.6
		(0.9)	(1.9)	(−0.1)	(−0.5)	(−1.0)	(0.6)	(1.1)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1.2	3.1	5.0	3.8	5.6	5.9	5.3
		(−1.5)	(−3.9)	(0.2)	(0.0)	(2.9)	(0.8)	(0.7)
	건설업	5.2	13.1	18.0	16.0	12.5	8.8	4.8
		(2.0)	(4.1)	(2.0)	(−1.3)	(−1.8)	(−1.0)	(0.9)
직업별	전문 · 기술 · 행정관리자	2.0	−0.2	−2.3	−2.9	−1.9	−2.3	−0.1
		(−0.5)	(0.1)	(−3.0)	(−0.5)	(0.8)	(−0.2)	(1.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4.5	13.7	15.1	16.0	11.8	6.4	6.4
		(2.5)	(1.2)	(−1.1)	(0.7)	(−0.3)	(−2.6)	(−0.2)
	서비스 · 판매종사자	−1.2	−3.4	−1.2	−1.1	−4.1	−2.6	−3.1
		(0.6)	(0.9)	(0.5)	(0.8)	(−1.3)	(0.9)	(0.1)
	사무종사자	−1.9	2.1	3.5	0.8	6.5	9.3	8.0
		(−1.8)	(−0.7)	(0.3)	(−1.7)	(2.6)	(4.4)	(−0.3)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0.4	4.8	5.5	4.6	4.3	3.4	−3.0
		(0.5)	(0.8)	(−0.6)	(−0.3)	(0.6)	(0.2)	(−0.5)
	비임금근로자	0.8	−1.8	−2.1	−0.8	−1.9	−2.0	4.3
		(−0.2)	(−0.6)	(−2.2)	(1.0)	(−0.8)	(0.2)	(0.6)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업·률 |

서울의 12월 실업률 및 고용률 각각 상승

■ 서울의 1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2월 실업자는 2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명(7.3%)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3천명, 여자는 8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2천명(9.5%), 3천명(3.7%)이 증가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전국의 1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보합

- 전국의 12월 실업자는 8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명(2.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1.5%) 증가하였고, 여자는 3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명(3.6%) 증가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7%, 여자는 3.2%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계절조정 실업률은 3.6%로 전월대비 0.4%p 상승

■ 서울 및 전국의 12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서울의 12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7%, 여자는 49.8%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3%p 1.8%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8.0%)과 1.5%p 차이
- 전국의 12월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여자는 46.8%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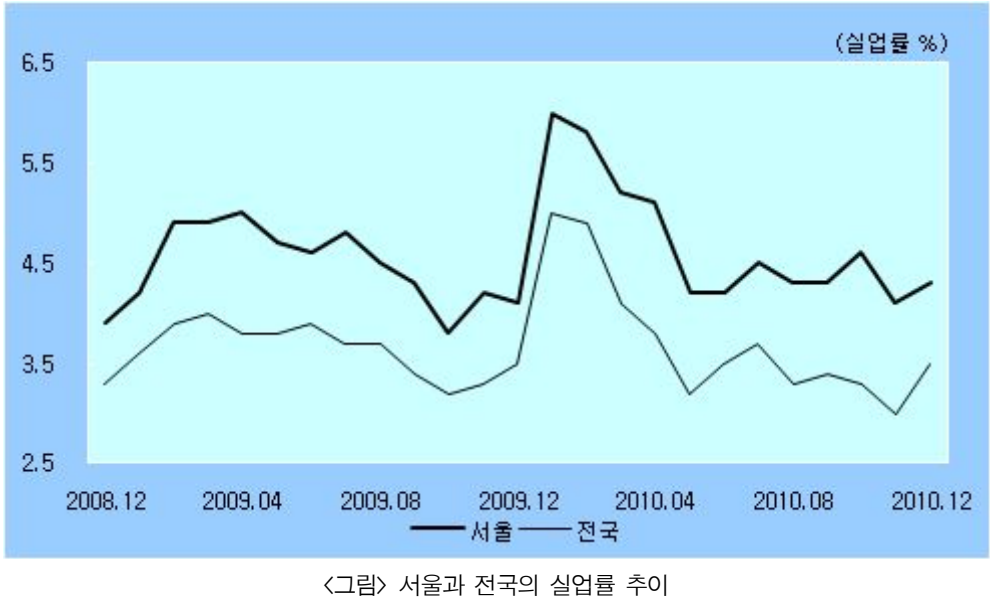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업률	서울	4.1	4.5	4.3	4.3	4.6	4.1	4.3
	남자	4.4	5.0	4.9	4.9	5.3	5.1	4.8
	여자	3.6	3.7	3.4	3.6	3.6	2.7	3.6
	전국	3.5	3.7	3.3	3.4	3.3	3.0	3.5

		2009년			2010년			
		2/4	3/4	4/4	1/4	2/4	3/4	4/4
청년층 실업률	서울	7.8	8.4	7.8	10.0	8.1	7.7	8.0
	전국	8.0	8.1	7.6	9.5	7.7	7.6	7.1
고령층 실업률	서울	3.2	2.0	1.7	7.2	4.3	3.1	2.7
	전국	1.9	1.6	1.5	5.8	2.1	2.0	1.9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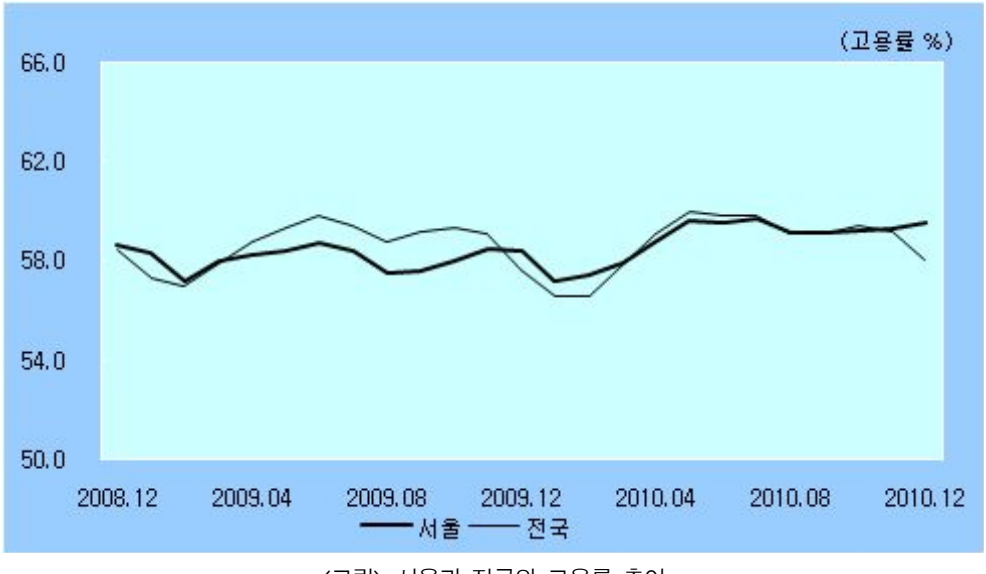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고용률	서울	58.4	59.7	59.1	59.1	59.2	59.3	59.5
	남자	69.4	70.0	69.6	69.4	69.5	69.3	69.7
	여자	48.1	50.1	49.2	49.4	49.5	49.9	49.8
	전국	57.6	59.8	59.1	59.1	59.4	59.2	58.0

		2009년			2010년			
		2/4	3/4	4/4	1/4	2/4	3/4	4/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5.6	43.8	42.8	42.8	44.1	44.0	43.7
	전국	41.1	40.7	40.1	40.1	40.8	40.6	39.9
고령층 고용률	서울	30.3	31.1	32.5	29.4	32.7	32.7	32
	전국	38.3	38.9	36.4	31.4	38.4	38.2	35.8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12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2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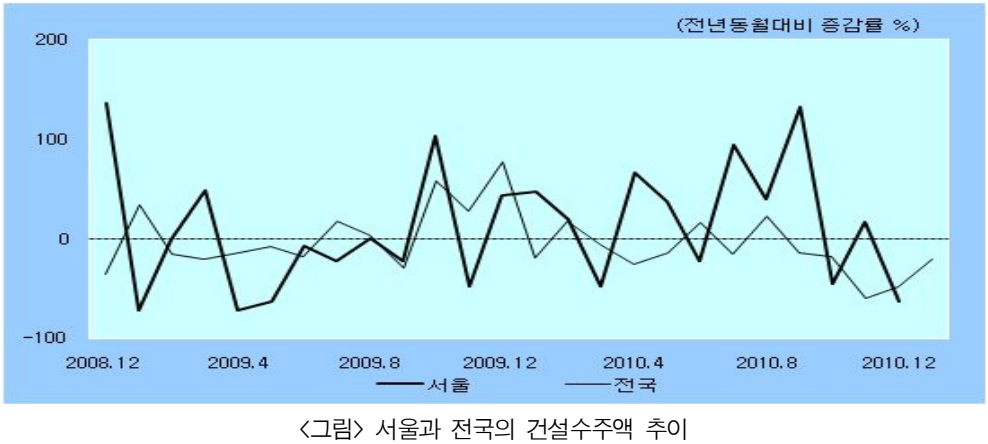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2조 20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2.4%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14조 13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8%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재개발, 신규, 재건축주택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4.3% 감소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철도 및 관공서, 상하수도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70.3% 감소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은 60.6%, 토목부문은 73.8% 각각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전월대비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률	증감률
서울		5,373	1,285	2,101	1,045	1,945	2,020	-62.4	3.8
발주자별	공공	1,089	71	185	192	79	607	-44.3	668.3
	민간	4,264	1,214	1,899	853	1,866	1,265	-70.3	-32.2
공종별	건축	4,644	1,150	1,914	898	1,932	1,829	-60.6	-5.3
	토목	730	136	188	148	13	191	-73.8	1,369.2
전국		17,688	4,010	7,381	4,274	7,459	14,014	-20.8	87.8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접고 9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전국의 12월 주택매매가격 4개월 연속 상승

- 1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물량이 부족한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 하락세를 접고 9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지속되는 광역시와 기타 지방의 상대적인 강세 속에 하락세를 접고 9개월 만에 상승 전환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11월	12월		
서울		100.2	101.4	101.4	−1.2	0
아파트		98.1	100.3	100.3	−2.2	0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9.1	100.5	100.5	−1.4	0
	강남	101.4	102.3	102.4	−1.0	0.1
전국		101.5	103.0	103.4	1.9	0.4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은 하락세를 접고 보합으로 전환

- 강북지역(0.0%)은 하락세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가운데, 중구(0.3%), 광진구(0.2%)등에서 상승하였고, 도봉구(-0.2%),은평구(-0.1%)등에서는 하락
- 중구(0.3%)가 서울역과 인접하여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여 유입되는 수요,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수요와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
- 광진구(0.2%)는 부동산 가격이 저점이라는 인식의 확대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매물이 회수되면서 물량이 부족해지는 모습
- 도봉구(-0.2%)는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매물이 증가하며 하락
- 은평구(-0.1%)는 은평뉴타운 3지구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

■ 강남은 강동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

- 강남지역(0.1%)은 강동구(0.3%), 서초구(0.2%)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금천구(-0.5%)에서는 하락
- 강동구(0.3%)가 고덕주공3단지 건축심의 통과호재와 9호선 3단계 구간 연장공사 착공으로 인한 교통 환경 개선 기대감 증가로 거래가 다소 활발해지며 가격이 상승
- 서초구(0.2%)는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마스터플랜 발표로 인한 매수세 유입과 교통 및 교육환경 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요 등의 증가로 상승
- 금천구(-0.5%)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호가공백 확대로 인한 거래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 12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하락세를 접고 상승전환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2월 31일 기준)은 1800.32만원으로 전월(1,795.92만원) 대비 미미하게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85만원), 서초구(2,860만원), 용산구(2,545만원), 송파구(2,401만원), 양천구(1,949만원), 광진구(1,877만원), 강동구(1,86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04만원), 도봉구(1,096만원), 중랑구(1,131원), 강북구(1,14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다소 둔화

■ 전국의 12월 주택전세가격 계절적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상승세 다소 둔화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7% 상승하며 매매가격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상승세 둔화
- 서울(0.6%)을 비롯한 수도권(0.6%)의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광역시(0.9%)와 기타지방(0.8%)은 물량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높은 상승률 지속

■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 우수학군수요 증가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 강북지역(0.4%)에서는 중구(1.0%), 성동구(0.7%)등에서 주로 상승하였으며, 강북구(-0.1%)에서 하락
- 중구(1.0%)가 도심 출퇴근 근로자 수요로 교통 역세권 위주로 물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
- 성동구(0.7%)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된 이후 학군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업무지구로의 접근 편리성으로 인한 근로자 수요 등으로 상승
- 강북구(-0.1%)는 미아뉴타운 입주가 마무리되고,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거래 둔화로 하락
- 강남지역(0.8%)에서는 강남구(1.6%), 양천구(1.3%)등을 중심으로 상승
- 강남구(1.6%)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학군 이동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치동 청실1, 2차 아파트와 논현동 경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로 전세임대기간 만료 세입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물량이 부족해지는 모습
- 양천구(1.3%)는 신정 · 신월뉴타운 이주수요와 겨울방학을 앞둔 학군수요 증가 등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
- 서초구(1.1%)는 계성초등학교와 '덜위치 칼리지' 외국인학교가 있는 반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학군 수요, 교통이 편리한 고속터미널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수요 및 젊은 직장인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상승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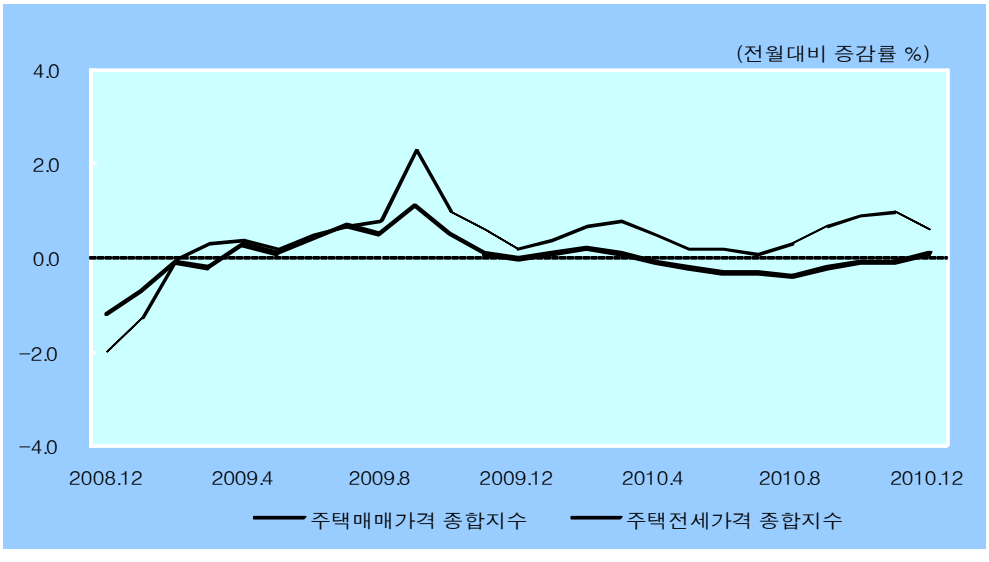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11월	12월		
서울		106.3	112.0	112.7	6.4	0.6
아파트		108.7	115.2	116.1	7.4	0.8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4.2	108.9	109.3	5.1	0.4
	강남	108.6	115.3	116.2	7.6	0.8
전국		103.7	109.9	110.8	7.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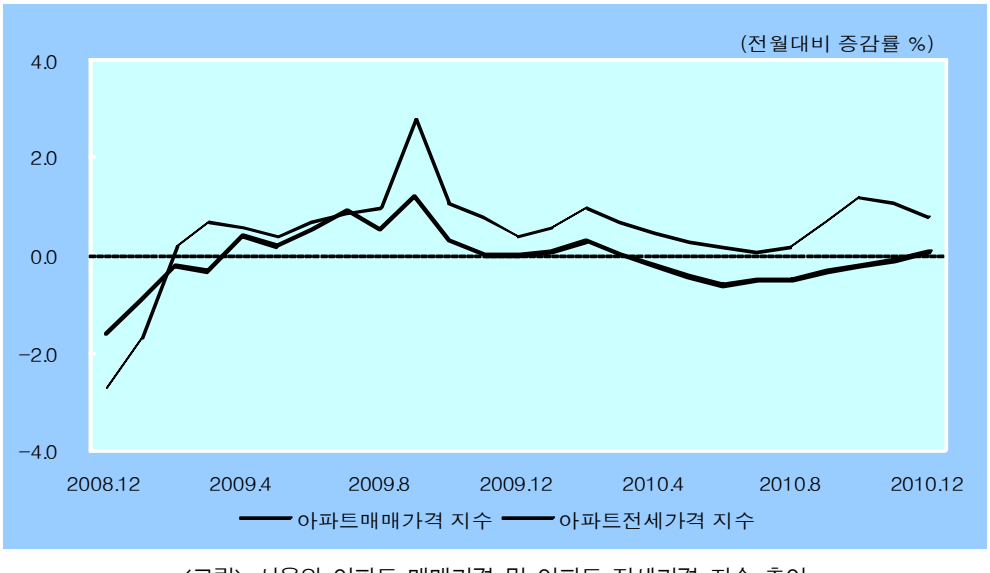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12월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4.4%로 전월(44.0%)보다 0.4%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
  (6월 42.1% → 7월 42.3% → 8월 42.6% → 9월 43.0% → 10월 43.5%→ 11월 44.0%)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7.1%보다 12.7%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2.8%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6.6%, 강남 42.5%로 강북과 강남의 격차는 4.1%p이며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 지난 세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 지속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중·자·금·사·정 |

12월 국고채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한 후 큰 폭 상승

■ 12월 중 국고채 금리 사상 최저치까지 하락한 후 큰 폭으로 상승

- 12월 중 국고채(3년)금리는 국고채 발행 및 유통물량 축소 등 수급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사상 최저치인 2.89%(12.7일)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미국 국채금리 급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방침, 국내 물가오름세 확대 전망 등으로 큰 폭 상승

■ 회사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하락한 후 큰 폭 상승

-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하락한 후 큰 폭으로 상승
- CD(91일) 금리는 11.16일(기준금리 25bp 인상) 이후 2.80% 수준을 유지

■ KOSPI 지수 빠르게 상승

- 12월 들어 코스피는 국내기업 실적호조 지속 예상, 미국 주가 상승,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 확대 등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
- 금년 들어서는 사상최고치인 2,088p(10.1.11일)까지 상승

  * 과거 사상최고치는 2,065p(07.10.31일)

  (8월말 1,124p → 9월말 1,683p → 10월말 1,883p → 11월말 1,905p → 12월말 2,051p)

■ 12월 중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 확대

- 외국인은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주가상승을 주도

  외국인 순매수(조원): 5월 -6.3조원 → 6월 0.6조원 → 7월 3조원 → 8월 -0.6조원 → 9월 4.5조원 → 10월 4.1조원 → 11월 1.9조원 → 12월 3.9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B−A)
		12월	9월	10월	11월(A)	12월(B)	1.25일	
금리	국고채(3년)		3.48	3.24	3.40	3.25	3.90	−0.15
	CD(91일물)		2.66	2.66	2.73	2.80	2.80	0.07
	콜금리(1일)		2.27	2.26	2.37	2.50	3.01	0.11
	장·단기 금리차[1]		0.82	0.58	0.67	0.75	0.89	0.08
주가	KOSPI		1,815.75	1,889.70	1,924.71	2002.50	2,082.16	77.79
	KOSDAQ		482.36	509.94	514.88	505.36	527.09	−9.52
환율 (₩/US$)			1,162.90	1,122.23	1,128.08	1,147.55	1,120.30	21.35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12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가규모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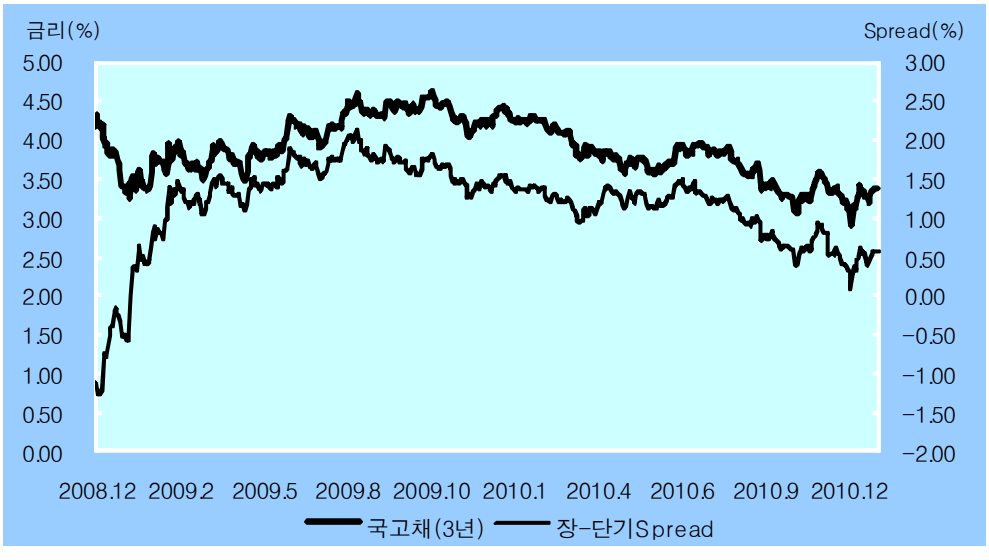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은행 가계대출이 전년 동월에 비해 확대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주택거래 증가, 낮은 대출금리 수준, 일부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개별대출도 늘면서 3.8조원의 큰 폭 증가를 기록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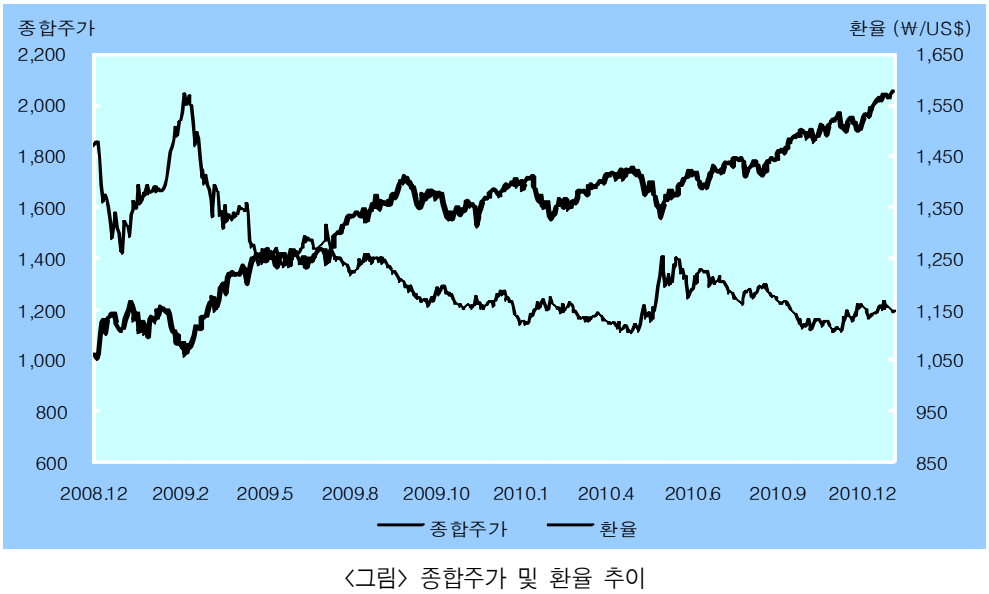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2010년		전월대비 증감률
	연중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월	12월	
가계대출[1]	20.1	1.0	1.3	2.7	4.1	2.1	428.3	430.4	2.1
주택담보대출[2]	25.4	−0.3	1.7	2.2	2.9	2.7	281.9	284.6	2.7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1.3	−0.4	0.5	1.2	−0.5	145.5	144.9	−0.6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11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28조 9,94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3조 3,382억원(0.63%) 증가
- 11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313조 795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 378억원(0.68%)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1]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서울	예금은행	419,997.6	423,386.5	425,692.8	428,399.7	430,077.3	1,667.6	0.38
	비은행기관	91,130.1	94,951.2	95,222.6	97,256.4	98,917.0	1,660.6	1.70
	합계	511,127.7	518,337.7	520,915.4	525,656.1	528,994.3	3,338.2	0.63
전국	예금은행	963,885.1	978,486.6	983,395.2	991,773.6	997,054.2	5280.6	0.53
	비은행기관	302,212.0	316,512.2	318,271.6	322,268.1	326,025.3	3757.2	1.16
	합계	1,266,097.10	1,294,998.8	1,301,666.8	1,314,041.7	1,323,079.5	9037.8	0.68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설·법·인·동·향 |

서울의 12월 신설법인 수 3개월 연속 증가

■ 서울의 12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38개로 전년동월대비 -1.7%(33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4.9%(91개) 증가
- 12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5,459개로 전월비로는 11.5%(564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0.6%(35개)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서울의 12월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7.8%(105개) 증가, 건설 및 설비업은 5.4%(7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은 6.5%(18개) 감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971	1,485	1,699	1,847	1,938	91	4.9	33	-1.7
서비스업	1,511	1,148	1,319	1,458	1524	66	4.5	13	0.8
제조업	315	243	277	257	299	42	16.3	-16	-5.0
건설 및 설비업	132	85	99	122	103	18	-14.7	-29	-21.9
전국	5,424	4,095	4,822	4,895	5,459	564	11.5	35	0.6

자료: 중소기업청

| 어·음·부·도·율 |

서울의 12월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신설/부도법인 배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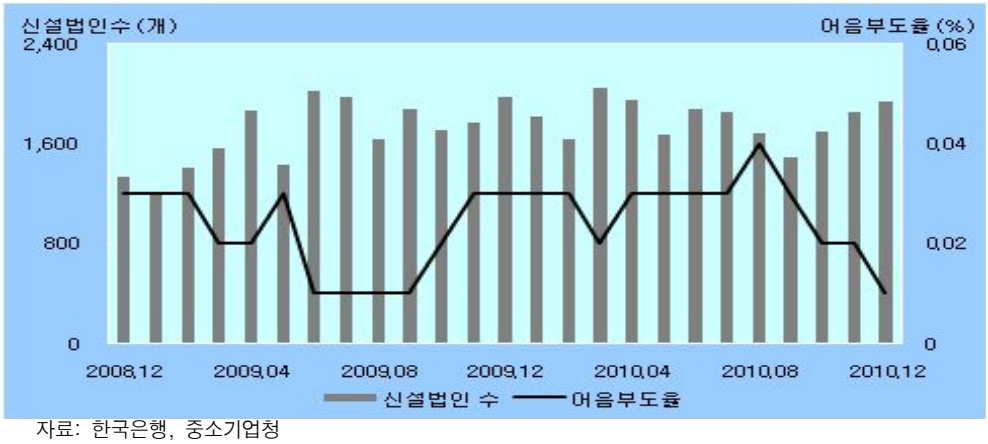
- 1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보다 0.01% 하락한 수준,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0.01%p 하락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64개로 전월대비 25.4%(13개) 증가,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62개로 전월대비 5.8%(9개) 증가한 수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37.2배로 전월(47.4배)보다 하락하였고,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4.0배로 전월(47.1배)보다 하락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3	0.02	0.02	0.01	0.01	0.0
	부도업체 수	62	49	48	51	64	13	25.4
	신설/부도법인배율	39.4	41.3	44.7	47.4	37.2	2.7	-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3	0.01	0.03	0.02	0.02	200.0
	부도업체 수	152	119	129	153	162	9	5.8
	신설/부도법인배율	49.3	51.2	50.8	47.1	44.0	-3.7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신용보증 공급건수 증가

■ 보증지원 건수 증가 및 건당 평균금액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2월중 3,180건, 46,034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15.9% 증가, 보증금액 9.9% 감소
-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2.0%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1.1%, 10.8%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3,577	7,934	4,012	2,743	3,180	437	15.9	-397	-11.1
금액	51,605	113,010	57,509	51,075	46,034	-5,041	-9.9	-5,571	-10.8
건당평균금액	14.4	14.2	14.3	18.6	14.5	-4.1	-22.0	0.1	0.7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음식·숙박업 지원 비중 상승

- 12월중 음식·숙박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17.2%로 전월(16.4%)대비 0.8%p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19.9%로 전월(21.2%)대비 1.3%p 감소하였음. 보증건수 기준으로 음식·숙박업종은 20.3%로 전월(17.8%)대비 2.5%p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종은 24.5%로 전월(27.5%)대비 3.0%p 감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274	1,150	647	778	331	3,180
비율	8.6	36.2	20.3	24.5	10.4	100.0
금액	3,780	19,461	7,926	9,181	5,686	46,034
비율	8.2	42.3	17.2	19.9	12.4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증재단

■ 중기업 지원 비중 증가한 반면 소기업 지원 비중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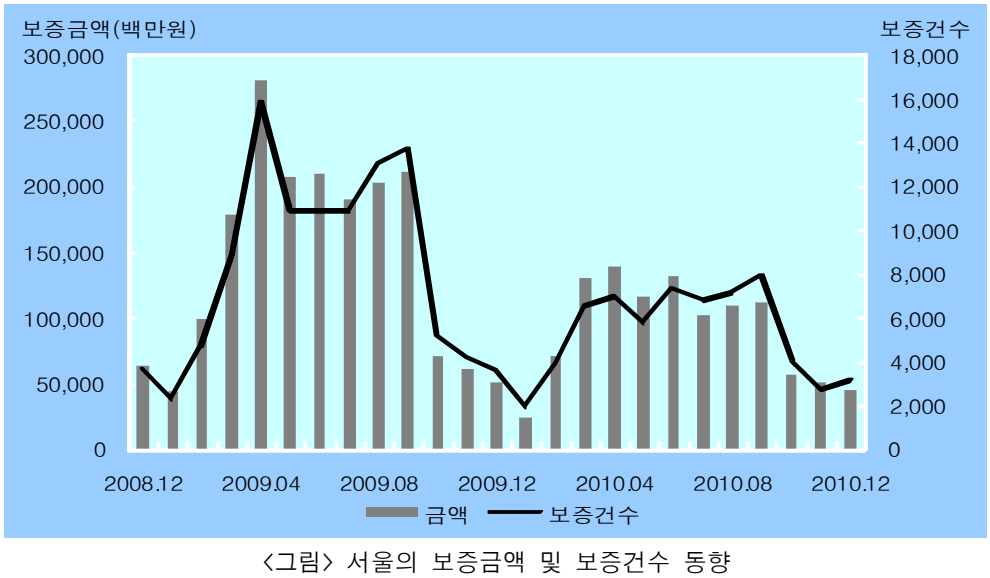
- 12월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6.6%로 전월대비 0.1%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95.9%로 0.4%p 감소
- 또한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0.9%, 건수기준 2.6%로 전월대비 각각 0.9%p, 0.1%p 감소하였음. 반면 중기업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5%, 건수기준으로는 1.5%로 전월대비 각각 0.8%p, 0.5%p 증가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10.10	2010.11	2010.12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3,919	2,641	3,048	407
	비율	97.7	96.3	95.9	-0.4
	금액	53,252	44,180	39,841	-4,339
	비율	92.6	86.5	86.6	0.1
소기업	건수	64	74	83	9
	비율	1.6	2.7	2.6	-0.1
	금액	3,235	6,018	5,026	-992
	비율	5.6	11.8	10.9	-0.9
중기업	건수	29	28	49	21
	비율	0.7	1.0	1.5	0.5
	금액	1,022	877	1,167	290
	비율	1.8	1.7	2.5	0.8
합계	건수	4,012	2,743	3,180	437
	비율	100	100	100	0
	금액	57,509	51,075	46,034	-5,041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출·입·동·향 |

서울의 12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2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서울의 수출은 42.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하였고, 수입은 96.7억 달러로 33.0% 증가
- 12월 전국의 수출은 441.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2.6% 증가하였고, 수입은 400.5억 달러로 21.7% 증가

■ 서울의 12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422,085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가장 많아 749,560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순

〈표〉 서울 및 전국 월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3,561	3,783	3,758	4,172	4,083	4,220	659	18.5
	수입	7,273	8,640	8,899	8,768	9,504	9,671	2,398	33.0
전국	수출	36,009	36,965	39,509	43,358	41,292	44,145	8,136	21.5
	수입	32,920	35,247	34,978	36,880	38,621	40,056	7,136	21.7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12월		2010년 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56,437	55.7	4,220,855	18.5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77,420	1018.5	469,121	24.3
2	자동차부품	213,702	153.7	438,008	105.0
3	편직물	207,434	19.3	252,178	21.6
4	반도체	172,067	69.7	197,333	14.7
5	무선통신기기	141,102	-3.3	174,755	23.9
6	합성수지	154,910	110.4	159,672	3.1
7	고무제품	128,397	35.1	154,509	20.4
8	컴퓨터	180,707	77.6	133,713	-26.0
9	합성고무	99,845	310.7	116,342	16.5
10	자동차	74,697	-8.3	97,538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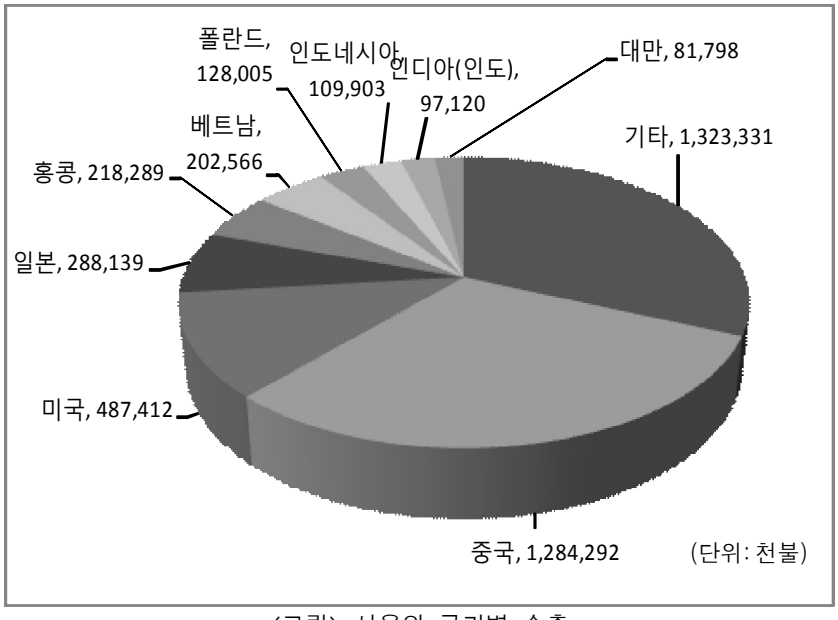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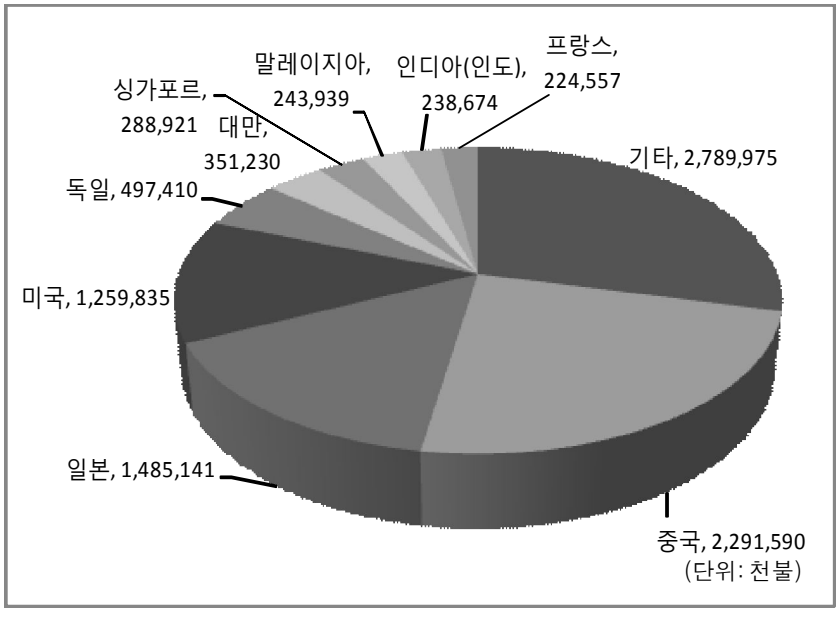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12월		2010년 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7,273,128	33.0	9,671,272	33.0
1	석유제품	437,645	886.9	749,560	71.3
2	반도체	584,569	36.6	740,224	26.6
3	컴퓨터	461,695	11.3	622,680	34.9
4	자동차	245,222	108.7	307,207	25.3
5	무선통신기기	197,595	67.9	288,964	46.2
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76,832	42.3	287,506	62.6
7	의류	202,248	9.8	275,064	36.0
8	LPG	113,086	-18.1	249,930	121.0
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32,164	71.0	235,769	78.4
10	플라스틱 제품	186,966	164.7	228,699	22.3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